

8 칼럼-‘일반명사’에서 ‘구체명사’로

아프리카(계) 문학의 부상과 세계문학 지형도의 변화

고인환

교수·후마니타스칼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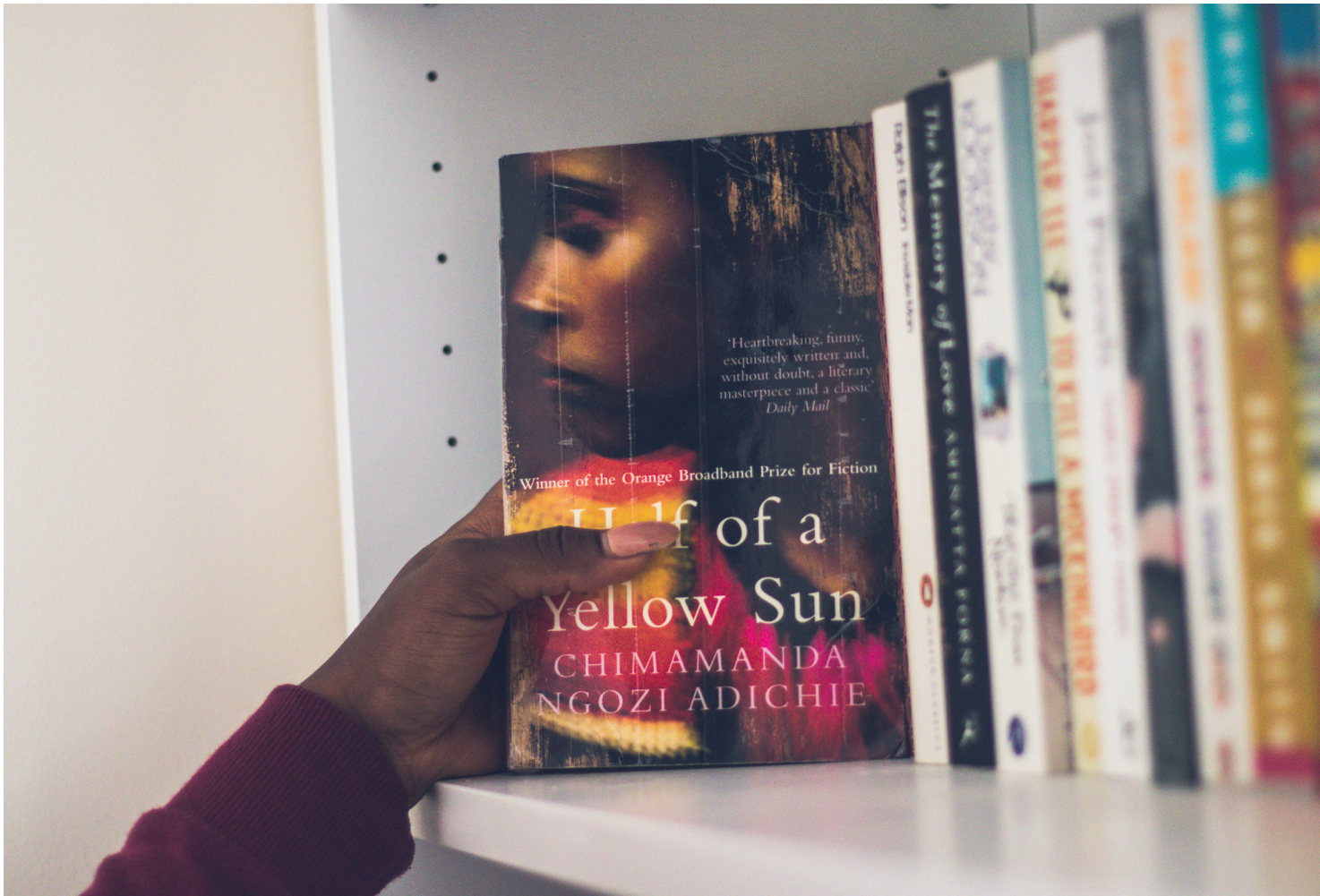
아프리카(계) 문학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중심의 세계문학 지형도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문학상을 아프리카(계) 작가들이 휩쓸었다.

탄자니아 출신 압둘라자크 구르나(노벨 문학상), 남아공 작가 데이먼 갈렛(부커상), 세네갈의 모하메드 은부가 사르(공쿠르상) 등이 그들이다.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도 세네갈 출신의 다비드 디옴에게 돌아갔다.

물론 아프리카(계) 문학이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서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딜레마를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프리카(계) 작가들이 식민 제국의 언어를 통해 서구중심주의 문학의 한계를 성찰하고, 서구와 비서구를 포괄하는 전 지구적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서구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문학 지형도에 균열을 내는 징후이자, 서구중심주의 문학이 지닌 근원적 한계, 즉 비서구를 타자화함으로써 권위를 정당화한 자기모순을 폭로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이, 나아가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부족이 자신들의 고유한 목소리를 획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50여 개국이 넘는 국가로 이루어진 거대한 대륙이다. 사용되는 언어만 해도 2,000여 종이 넘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프리카를 마치 하나의 국가인 양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과거 식민주의 담론의 끈질긴 유산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그랬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와 비서구 사이에 낀 우리의 초상, 즉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한 우리의 ‘민낯’을 되돌아보게 한다.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 해방과 전쟁, 분단 그리고 산업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우리 근·현



아프리카(계) 문학의 부상은 서구중심주의 문학의 한계를 성찰하게 하며, 서구와 비서구를 포괄하는 전 지구적 문제의식의 표출이다.

(사진=언스플래시)

“

아프리카(계) 문학은 식민 모국(서구)과 조국(아프리카 대륙) 사이의 경계를 심문하는 ‘구체명사’의 시각으로 지구적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

대사의 주류 담론에는 ‘서구·백인·남성’의 시각으로 표상되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가 알게 모르게 투영돼 있다. 서구 식민주의자의 논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선진 문명’ 등의 개념으로 몸을 바 꾸 지배 엘리트들의 목소리로 끊임없이 부활했다. 이러한 목소리에는 오리엔탈리즘, 식민주의가 강제한 노예무역,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들의 비애, 문명화의 탈을 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등 200여 년에 걸친 서구중심의 폭력적 근대사가 함축되어 있다.

소말리아 출신의 작가 누르딘 파라는 『지도』에서 이러한 아프리카의 왜곡된 현실을 ‘일반명사’와 ‘구체명사’의 투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반명사’는 외부인이 아프리카인들을 타자화한 명칭이다. 이를테면,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까만 얼굴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다. 이러한 일반명사로 규정된 국가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기 어렵다. 반면, ‘소말리아’는 구체적이다. ‘소말리어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의 조상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이다. 소말리아 사람들은 여러 지역으로 분열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른바 아프리카의 구체적 현실을 ‘일반명사’로 타자화한 외세와 이를 지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강압적인 논리 때문이다.

작가는 이에 맞서 소말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통일 조국, 즉 ‘구체명사’의 공동체를 염원하고 있다. 최인훈의 『광장』에서 조정래의 『태백산맥』, 황석영의 『손님』 등에 이르는 한국 분단소설의 흐름이 소말리아의 현실과 접속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한국 분단소설의 역사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타자화된 ‘일반명사’의 세계에서 살아 숨 쉬는 ‘구체명사’의 영역으로 옮겨오기 위한 고투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말리아와 한국이 ‘일반명사’의 세계를 넘어 ‘구체명사’의 영역에서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문학적 연대의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다.

누르딘 파라는 『해적』 또한 이와 유사한 경험을 선사한다. 우리에게 소말리아는 ‘해적의 나라’(일반명사)로 알려져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소말리아의 구체적 현실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작품에 따르면, 해적 행위는 소말리아 경제의 한 축이 되고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 해적 행위는 생존의 한 방법이다. 또한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임시정부에 대한 저항이자 조국의 해역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다.

소말리아 사람을 해적으로 내모는 주요한 동기 중 하나는 외세의 착취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다. 작가는 이러한 해적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다. 타자의 구체적 현실에 관심을 가졌을 때, 즉 그들을 ‘구체명사적 존재’로 호명했을 때, 비로소 대화와 소통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말리아와 한국은 ‘일반명사’에 둘러붙은 추상의 껍질을 깨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계) 문학은 식민 모국(서구)과 조국(아프리카 대륙) 사이의 경계를 심문하는 ‘구체명사’의 시각으로 지구적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인종과 국가, 언어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약진하는 이들의 문학들이야말로, ‘옛 이야기는 붕괴했지만 그것을 대신할 만한 새 이야기는 아직 출현하지 않’(유발 하라리),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새로운 ‘세계문학’의 출현을 시사하는 ‘오래된 미래’의 한 징후가 아닐까 싶다. 이는 서구와 비서구의 경계를 넘어 온전한 세계문학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의 하나라 할 수 있다.